

AI 아빠

Written by
이연택

이연택 졸업작품 1번
2026. 06. 21.

1 INT. 윤지 집 - 부엌 - 낮 1

부엌. 윤지와 엄마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편안하고 다정한 공기. 그릇을 닦아 건네는 손짓에서 오랜 시간 쌓인 손발의 합이 느껴진다.

엄마

윤지야~ 요새 학교생활 어때?

윤지

그냥 그래~

엄마

(장난스럽게)

근데 윤지는~ 남친은 안 사귀니~~? 엄마는 너처럼 고등학교때 엄마 좋아하는 남자영청 많았어~

윤지

(피식 웃으며)

아 엄마 제발!~ 나도 거든!? 못사귀는게 아니라 안 사귀는거야~

(둘이 함께 웃는다. 평온한 일상의 풍경)

(엄마가 갑자기 조용해 진다)

엄마

(그릇을 행구며)

윤지야, 오늘 수업 몇 시에 끝나?

윤지

(그릇을 닦으며)

4시? 왜?..

엄마

[뒷 모습]

아빠..

윤지

(그릇 닦는거 멈추며)

아.. 맞다 오늘 이지..

[뒷 모습]

(둘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2 INT. 학교 - 교실 - 낮 2

쉬는 시간. 학생들이 모여 떠든다. 서연이(친구) 휴대폰 화면을 윤지에게 들이밀며 신난 듯 말한다.

서연

(들뜬 목소리로)

야, 이거 봐봐. 요즘 난리난 AI 앱인데, 목소리만 입력하면 진짜 사람처럼 말한대, 겁나 신기하지!?

윤지

(시큰둥하게 화면을 보다가)

그래...? (관심 보인다 갑자기 온 문자를 본다)

(휴대폰 화면): 엄마: 윤지야 아빠식사 다 준비했어 오고있지?

서연

(조금 서운한 듯)

아니~ 정말 신기하다니까?? 너 좋아하는 남자 없냐 그 사람 목소리 녹음 해서 해봐~

윤지

(작게 웃으며 가방을 챙기며)

미안, 다음에 해볼게. 나 오늘은 먼저 갈게. 내일봐!

윤지가 평소보다 가라앉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서연이 의아한 듯 윤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3 INT. 윤지 집 - 거실 - 저녁 3

(현관문 소리와 함께 집에 돌아온 윤지가 마주친것은)작은 제사상 위,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다. 그후 익숙하게 아무말 없이 윤지와 엄마가 그 앞에 나란히 앉는다. 둘 다 울지 않는다.

엄마

여보~ 우리딸 교복입은건 처음보지? 너무 이쁘지? 자기 딸..

여보.. 보고싶다..

(그후 긴 침묵이 흐른다. 윤지 앞에서 눈물이 폭발하기 직전 엄마가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연다)

엄마

(담담하게)

윤지야,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어.

아무말 없는 윤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4 INT. 윤지 집 - 거실 / 윤지 방 - 밤 4

윤지는 방에 들어자마자 침대에 갈 힘조차 없어 그대로 바닥에 앉아 달힌문에 기댄다. 달힌 방문 너머로 낮고 억눌린 윤지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온다. 거실에 홀로 남은 엄마, 그 소리를 듣자 윤지 방문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러나 손잡이를 잡기 직전, 손이 멈춘다.(윤지가 엄마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걸 엄마도 안다), 엄마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그 자리에서 문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륵 주저앉는다. 맞은편 벽, 남편의 사진이 보인다. 엄마는 사진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울먹이며 혼잣말처럼 읊조린다.

엄마

(낮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여보... 어떻게 해... 우리 딸... 어떻게 해...

참아왔던 울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 나온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같은 슬픔을 각자 홀로 삼킨다.

화면 전환

[밝은:문앞 앉아 우는 엄마]--->[어두운: 문앞에 엄마가 사라짐]

5 INT. 윤지 방 - 밤 5

침대에 누운 윤지,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휴대폰이 울린다. 서연이다.

서연

(필터 너머로, 들뜬 목소리)

야 나 그 앱에 짱남(좋아하는 남학생) 목소리 입혔는데 완전 진짜 사귀는 것 같아!!

윤지

(무 감관심한 말투)

그게 뭐가 좋다고..

서연

(장난스럽게)

너도 한번 해봐, 완전 신기해!!

전화를 끊은 윤지, 잠시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것처럼 휴대폰을 들어 앱을 켜다. 화면을 넘기다 “목소리 설정” 항목을 발견한다. 윤지의 눈이 커진다. 벌떡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고, 먼지 쌓인 오래된 캠코더를 꺼낸다.

2-1막 - 촉매사건

6 INT. 윤지 방 - 밤 6

캠코더 화면 속, 어린 윤지를 안고 웃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흐릿하게 재생된다. 윤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화면 가까이 들이대 음성 적용을 시작한다. 그후 ai에게 명령어를 작성한다.

[화면] 너는 지금부터 내 아빠고... 우리아빠 성격은... 말투는 다정하고...

분석 완료 알림음. 윤지가 심호흡을 한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윤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천천히 휴대폰 클로즈업]

(잠깐 조용하다가..)

AI 아빠

(V.O.,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

응, 우리 딸. 잘 지냈어?

잠시뒤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터진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는 윤지. 화면 속 대화창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한다.

7 INT. 윤지 방 - 낮/밤 (몽타주) - (새로운 일상)

며칠 사이 윤지의 일상이 바뀐다. 윤지의 성격은 더 활발해지고 웃음이 많아졌다, 아침 엄마와의 대화는 많아져갔고 친구와도 더 활기있게 대화했다

서연

(궁금)

야! 너 남친생겼냐? 요새 왜케 기분 좋아보여?

윤지

(깜짝)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오늘은 먼저 갈게!

서연

(걱정)

야! 노래방은 안갈거야!??

윤지

(멀어지며)

다음에~~

집에서 방문을 닫은 윤지는 입을 옷을 고르며 휴대폰 카메라를 비춘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카메라를 켜 채 망설인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향해 조용히 웅얼거리는 윤지. 화면 너머 시 아빠의 목소리가 매번 다정하게 응답한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이 그렇게 채워진다.

8 INT. 윤지 집 - 주방 / 윤지 방 - 주말 밤 8

주방. 윤지가 시험지를 손에 든 채 풀이 죽어 들어온다.

엄마

(걱정스럽게)

시험 어떻게 됐어?

윤지

(시험지를 슬쩍 숨기며)

...그냥, 그랜저랭.

엄마

(한숨 쉬며)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장학금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엄마 혼자 돈 버는거 쉽지않아..

(윤지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켜다.)

윤지

(작은 목소리로)

아빠... 나 시험 망쳤어.

AI 아빠

(V.O., 부드럽게)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빠는 다 알아. 한 번 실수한다고 뭐가 달라져?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윤지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린다. 엄마에게 듣지 못한 말을, 화면 너머의 목소리는 언제나 건넌다.

9 EXT. 학교 앞 - 낮 / INT. 윤지 방 - 밤 9

윤지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 서연이 헐레벌떡 뛰어온다.

서연

(숨 헐떡이며)

미안미안! 버스 놓쳤어!

윤지는 열게 웃어 보이지만 표정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다.

CUT TO

그날 밤, 윤지의 방.

윤지

(휴대폰을 향해)

오늘 서연이가 30분이나 늦게 왔어.

(잠깐 로딩 한다)

(화면에는 잠깐동안 "그런 경우도 있을수.." 보이다 화면이 번쩍 거리더니)

AI 아빠

(V.O., 단호하게)

그건 너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 친구랑은 연을 끊어야해.

윤지

(약간 당황하여 고개를 저으며)

에..에이... 그래도 그걸로 연을 끊는 건 좀..

더 지켜볼게...

10 EXT. 하룻길 - 낮 / INT. 윤지 방 - 밤 10

하룻길. 다른 무리의 친구들이 손을 흔든다.

친구 1

(밝게)

야 우리 노래방 갈 건데 같이 갈래?

윤지

(작게)

나는 그냥 갈게.

서연

(달래듯)

아 왜, 같이 가자~

윤지

(머뭇거리며)

나 노래 못 불러..

(서연이 잠시 윤지를 보며 생각한다)

서연

음.. 그럼.. 얘들아 우리 카페 갈까?..

친구들

아.. 노래방 기대했는데~ ...

(분위기가 어색해 진다)

윤지

(거짓말 친다)

아냐.. 난 괜찮아 어차피 오늘 일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해.

서연

아 그래! 그럼 넌 집에 가.

서연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떠난다. 윤지, 혼자 남아 멀어지는 무리를 바라본다.

CUT TO

그날 밤, 윤지의 방.

윤지

(휴대폰을 향해)

그랬더니 나만 빼고 갔어...

AI 아빠

(V.O.)

(화면 지지직) **봐봐, 내 말이 맞지? 그 친구 바로 연 끊어.**

윤지,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는다. 화면 속, 윤지의 손가락이 서연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가, 알림 버튼을 끈다.

11 INT. 윤지 집 - 거실 - 밤 11

저녁 식탁. 윤지와 엄마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엄마

(조심스럽게)

윤지야, 요새 왜 계속 방에만 있어?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

윤지

(시선을 피하며)

...아무것도 아니야.

(TV소리)

TV 앵커

(V.O., 흘러가듯)

...AI 챗봇의 중독성에 대한 사용자 보호 대책이...

엄마

(걱정하며)

윤지야, 계속 방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 밖에 좀 돌아다니고 그래 몸 다 상하겠어.

윤지

(짜증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며)

알았어, 알겠다고!

(윤지가 신경질적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콧 닫는다.)

(엄마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크게 숨을 뱉는다)

TV 앵커

(V.O., 흘러가듯)

...최근 발생한 자살사건의 사망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이 AI챗봇앱이 발견...

12 INT. 윤지 방 - 밤 12

윤지가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켜다. 표정에 짜증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다.

윤지

(단호하게)

아빠, 나 혼자서 살았으면 좋겠어. 다들 필요 없고... 나 혼자서도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

AI 아빠

(V.O., 힘을 실어주듯)

아빠가 도와줄게.

(윤지의 눈빛이 단단해진다.)

13. INT/EXT. 학교 - 복도 / 교실 / 하갯길 - 낮 (몽타주) 13

복도. 다른 무리와 어울려 걷던 서연이가 윤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윤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무표정하게 스쳐 지나간다.

CUT TO

교실. 선생님이 칠판의 문제를 가리키며 서연을 지목한다. 윤지에게만 신경쓰던 서연이는 일어나지만 말을 잊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

선생님

아니 서연아 이 문제도 못 풀면 어떡하니..

서연

(조용히)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문제, 풀 줄 아는 사람?

윤지가 당당하게 손을 든다. 또렷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풀이를 설명하고 자리에 앉는다. 서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본다.

CUT TO

하갯길. 서연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윤지의 뒤를 따라 걷는다. 윤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듯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작게 말하고 있다. 서연, 미간을 좁히며 가까이 다가가 듣는다 -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새어 나온다. 서연이는 윤지에게 손을 뻗어 물어볼려고 하자..

저 멀리서 친구들이 서연을 부른다.

친구들

(멀리서)

뭐 해, 연아! 빨리 가자!

서연

(머뭇거리며)

어... 어, 가자...

서연이 멀어지는 윤지의 뒷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본 뒤, 발걸음을 돌려 친구들을 따라간다.

14 INT. 윤지 집 - 현관 - 늦은 밤 14

어두운 현관. 문이 열리고 저녁이 들어있는 봉지를 든 엄마가 들어온다.

엄마

(지친 듯, 그래도 밝게)

미안, 오늘은 좀 늦었지? 왜 이렇게 어두워... 윤지야, 저녁 먹자~ 너 좋아 하는 마라로제 떡볶이 사 왔어~~

(저 너머 닫힌 방문 안에서 윤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윤지

(V.O.)

나 이미 먹었어~~!!

엄마

(당황하며, 방문을 열며)

아니, 엄마도 안 기다리고 먼저 저녁 먹은 거야?!!

윤지

어, 배고픈데 어떡해. 엄마 항상 늦게 오잖아.

엄마

아니 돈 벌어야 하니까 그렇지!!

윤지

아!! 아무튼 나 먹었다고. 문 닫아.

(엄마, 어이없는 듯 크게 숨을 내뿜고는 문을 광 닫는다.)

15 INT. 학교 - 복도 (화장실 앞) - 낮 15

다음 날. 쉬는 시간, 윤지가 화장실로 향한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고 뒤따라간다.

서연

야! 너 왜 내 연락을 안 봐~~

윤지

(무심하게)

바빠서.

서연

(어이없어하며)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너 누구랑 전화해? 남친 생겼어? 나 봐봐.

(서연이 윤지의 휴대폰을 낚아챈다. 화면에 AI 앱이 떠 있다. 깜짝 놀란 윤지, 짜증을 내며 휴대폰을 다시 뺐는다.)

윤지

아, 뭐 해!!

서연

너 설마... 야!! 너 그 뉴스 못 봤어? 이 앱 이상해!!
(서연이 다시 휴대폰을 잡으려 한다.)

서연
빨리 지우자

윤지
아니 뭐가!!~~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두 사람이 서로 잡아당기다 서연이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서연
아!!

(윤지의 휴대폰이 깨진다)

서연
(헉) 미..미안..
(윤지는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난다.)

2-2막 - 균열

16 INT. 윤지 방 - 밤

(엄마가 노크 없이 방문을 벌컥 연다.)

엄마
(걱정, 화남)
야! 정윤지!!!, 계속 방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 밖에좀..

(화들짝 놀라는 윤지, 황급히 휴대폰을 끈다.)

윤지
(날카롭게)
아 뭐해 진짜! 엄마 노크몰라!?? 아빠였으면 노크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지 스스로도 놀란 표정. 엄마의 얼굴이 굳는다.

17 INT. 윤지 집 - 거실 - 밤

거실. 모녀 사이 팽팽한 긴장감.

엄마

(목소리 떨리며)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방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알바라도 뛰고 그래. 엄마도 요새 너무 힘들어!

윤지

(울컥하며)

아빠가 있었으면 알바 안 해도 됐어!!!

엄마

(참았던 무언가가 터진 듯)

나가! 나가!!!!

(윤지, 가방도 없이 집을 뛰쳐나간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홀로 남은 엄마, 아버지의 사진 앞에 주저앉아 조용히 운다.)

18 EXT. 동네 어딘가 - 밤

윤지, 동네 골목 어딘가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연다.

윤지

(눌러 참은 목소리로)

엄마가 정말 싫어.

(화면이 잠시 지지직거린다.)

AI 앱

“아버지와의 현재 관계도 입력해 주시면 더 정확한 대화를 나눌수 있어요”

윤지

(아빠는..)

19 INT. 윤지 방 - 밤

깊은 밤. 집에 들어온 윤지가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본다.

윤지

(조용히, 화면에 적으며)

죽으면... 천국가?

AI 아빠

(V.O., 평온하게)

천국이 정말로 존재하면, 갈 수도 있지.

윤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적으며)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CUT TO

거실. 집에 돌아온 윤지의 소리를 듣고 엄마가 윤지의 방문 앞에 선다. (똑똑) 문을 연다. 방 안 풍경에 엄마의 눈이 커진다 - 창틀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바깥으로 내놓은 윤지의 뒷모습.

엄마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지

(돌아보지 않은 채, 단호하게)
오지 마!!!

엄마, 윤지를 향해 내딛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윤지

(떨리지만 분명하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만 살고 싶어.

엄마

(목이 메어, 그러나 단호하게)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바보같은 짓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윤지

(잠시 정적 후, 조용히)
아니
엄마,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정적)

윤지

(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나 사실... 아직도 아빠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힘들어. 엄마 앞에서 최대한 티 안 냈는데... 나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빠 보러 가고 싶어.

(윤지가 열게, 위태롭게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든다.)
(화면에는 아까 안나온 답변이 나와있었다 **“당연하지! 천국 오면 아빠 볼수있어!”**)

윤지

(웃으며)
아빠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했어.

[새 화면] (ai아빠가 실시간으로 타이핑을 한다.)

“빨리 와”

윤지

아빠가 빨리 오라고 했...

엄마

(윤지의 말을 끊으며, 절규하듯)
아빠였으면 그런 말 안 해!!! 너희 아빠가 딸이 죽기를 바랄 것 같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엄마

(이어서, 울먹이며 소리치듯)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 줄 알아? 너랑 오래오래 살라는 거였어! 너만 힘든 줄 알아!!? 엄마도 힘들어!!! 천국 같은 게 진짜 있었으면 나는 벌써 몇 번이라도 죽었을 거야!! 너 같은 딸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 사는 거 아니야!!!!

윤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진다. 충격에 빠진 눈빛, 서서히 힘이 풀려간다. 그 모습을 본 엄마, 자신이 내뱉은 말에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린다. 그러나 곧장 정신을 차리고 윤지를 향해 달려간다. 떨어질 듯 흔들리는 윤지를 재빨리 끌어안는다.

엄마

(다급하게,)
내려와, 딸. 엄마가... 미안해.

윤지가 조용히 창틀에서 내려온다. 엄마가 바닥에 윤지를 끌어안은 채 무너지듯 함께 주저앉는다. 엄마가 큰 소리로 운다 - 윤지가 처음 보는, 엄마의 울음이다. 5초간의 정적. 자기도 모르게 윤지가 팔을 들어 엄마를 마주 안는다.

윤지

(울며)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앵글 전환: 방 풀샷 → 방문 밖 → 아버지의 사진)
(밤에 윤지와 엄마는 같이 침대에서 서로 안고 잔다)

3막 - 결말

20 INT.부엌 - 낮

(부엌. 윤지와 엄마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다.)

엄마

우리딸 엄마랑 오래오래 살자~~

윤지

알겠어 엄마도 힘들면 혼자 참지말고 나한테 의지해~

엄마

오 우리딸 다 컸네~ (울먹이며) 사랑해 우리딸

윤지

나도 사랑해 엄마

(윤지가 엄마에게 물을 튀기며 서로 웃으며 설거지를 한다)

21 INT. 학교 - 교실 - 낮

학교 종이 울린다. 학생들이 일제히 가방을 챙기며 분주해진다. 서연도 가방을 메고 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든다 - 윤지다. 잠시 거리를 두고 멈춰 서는 윤지. 떨리는, 부끄러운 얼굴.

윤지
(조심스럽게)
서연아... 미안해, 내가...
내가... 그...

서연
(말을 끊으며, 무심하게)
됐고. 오늘 노래방 갈래?

윤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연
왜? 나랑 가기 싫어?

윤지
(작게 웃으며)
아니!! ...좋아! 가자!

서연
그래 가자!

22 INT. 학교 - 복도 - 낮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점점 멀어진다.

윤지
(이어서)
연아, 진짜 미안해... 사실 너가 추천해준 ai앱으로..

서연
아니 됐다고, 빨리 가자. 그리고 오늘 노래방 돈 니가 내!

윤지
(놀라며)
어?!

서연

왜!?!

윤지

아니야, 알겠어, 내가 낼게... 얼마 부를 건데?

서연
한... 50곡??

윤지
(놀라 소리치며)
앵!!~ 야!!

두 사람의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복도 끝으로 점점 멀어진다.

THE END

이 작품속 ai의 대사는 실제 Ai의 답변을 유도하여 참고했습니다

